

임실군, 귀농 정착 꿈 키운다

농촌유학 활성화·정주 환경 개선

'오수 귀농인 임시거주시설·딸기 스마트팜' 입주자 모집

임실군이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지역 농업의 미래를 이끌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오수 귀농인 임시거주시설 및 딸기 스마트팜' 입주자를 모집한다.

군은 그동안 체계적인 귀농·귀촌 지원 정책을 바탕으로 도시민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적극 지원해 왔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청장년층 중심의 우수한 귀농 인구를 유입해 지역 농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특히, 이번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오수 봉천 귀농인 거주시설은 폐교된 오수 봉천초등학교 부지를 활용해 조성한 귀농·귀촌 특화단지로, 유류시설을 지역발전 지원으로 재탄생시킨 모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군은 지난 2023년부터 3년간 총사업비 51억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했으며, 올해 2월 준공 승인을 거쳐 3월 준공식을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운영준비를 마쳤다.

모집 규모는 총 10가구로, 최종 선발된 입주자에게는 66㎡ 규모의 단독주



오수 귀농인 임시거주시설 전경.

택형 임시거주시설과 함께 현재 조성 중인 딸기 스마트팜 실습농장이 제공된다.

스마트팜 실습농장은 총 사업비 14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현재 막바지 공정이 진행중이며, 오는 8월 준공 후 거주시설과 연계 운영될 예정이다. 입주자들은 스마트팜 실습을 통해 고소득 작목인 딸기 재배기술을 체계적으로 익히며 안정적인 영농 정착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실습농장 규모는 구역별로 544㎡에서 660㎡ 수준으로 조성되며, 입주자들은 8월 초 입주해 9월부터 본격적인 작물 식재와 영농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임대기간은 기본 2년으로 운영되며, 예비 귀농인들이 충분한 시간동안 영농기술을 습득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신청일 현재 임실군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했거나, 임실군으로 전입한 지 1년 이내인 세대 중 향후 임실에서 딸기 스마트팜 운영을 희망하는 예비 귀농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7월 3일까지이며, 신청 희망자는 관련서류를 구비해 임실군청 농촌활력과 귀농귀촌팀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임실=진홍영 기자

임실군, 7월 3일까지 '농촌유학 빈집재생사업' 추가 접수

임실군이 농촌 지역의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여 도시 지역 유학생 가족에게 안정적인 정주 환경을 제공하는 '2026년 농촌유학 빈집재생사업'의 추가 접수를 진행한다.

이번 추가 공모는 농촌유학을 활성화하고 관내 정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군은 고향사랑기금으로 확보한 총사업비 3억5,000만원을 투입해 올해 총 14개소 지원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접수를 통해 빈집 3개소를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지원 규모였던 6개소와 비교해 두 배 이상 확대된 수치이다.

사업 대상은 청용면, 신평면, 삼계면, 지사면, 관촌면 농촌유학 운영학교의 통학구 내에 위치한 빈집이다. 최종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보일러 교체, 지붕·부엌·화장실 수선, 도배 및 장판 교체 등 실거주에 필요한 리모델링 비용을 개소당 최대 2,500만원까지 지원

한다.

단, 신청자는 전체 사업비의 5%인 최소 132만원 이상의 자부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지원 조건을 충족한 빈집 소유주는 리모델링을 완료한 후, 전북농촌유학 가족체류형 유학가족에게 의무 임대기간인 4년 동안 해당 주택을 무상으로 임대해야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빈집 소유주는 오는 6월 23일부터 7월 3일까지 11일간 해당 면사무소 총무팀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군은 접수가 마감되면 서류 심사

현장 확인을 거쳐 오는 7월 15일에 최종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후 7월부터 본격적인 리모델링 공사에 착수하고 8월 중에 보조사업자, 군, 농촌유학 운영학교와 협약 체결을 완료해, 2027년 1학기에 농촌유학생 가족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지역 소식통

남원시, 상하수도요금 누리집 납부 서비스 도입

남원시가 시민들의 상하수도요금 납부 편의를 높이기 위해 누리집(https://www.namwon.go.kr/waterpay)을 통한 온라인 납부 서비스를 본격 운영한다.

이 서비스는 시민들이 남원시 누리집에 접속해 상하수도요금을 조회하고 즉시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금융기관 방문 없이 간편하게 요금을 납부할 수 있어 시민들의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고지서를 통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별도의 납부 절차를 거쳐야 했으나,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요금 조회부터 납부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됐으며, 납부 결과가 실시간으로 반영돼 보다 신속한 요금 관리가 가능해졌다.

특히 누리집에서 상하수도 요금 납부 화면으로 바로 접속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구성해 시민들의 이용 편의성을 높였으며, 이번 서비스는 시민 편의 증진과 종이 고지서 사용 감소, 행정 효율성 향상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 조림지 가꾸기 사업 본격 추진

임실군은 산림자원의 건강한 성장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2026년 조림지 가꾸기사업'에 총 사업비 15억 3,700만원을 투입하여 660ha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군은 지난 6월부터 1차 사업(454ha)을 추진 중이며, 8월부터 2차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조림 후 5년 이내의 조림지 가운데 조림목이 생육초기에 잘 자랄 수 있도록 풀베기, 덩굴제거, 가지치기 작업을 실시하는 것이다. 임실군은 이를 통해 조림목의 생존율을 높이고 숲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작업자를 대상으로 보호구 착용 의무 및 예초기·톱 등 장비 안전 사용법, 폭염·낙산·전도 등 작업중 사고 예방 요령과 벌·뱀 등 산림 내 위험 요소 대응 및 응급처치 방법 등을 교육시켜 다양한 위험 상황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 회문산 해원제 개최

6·25전쟁 희생자 넋 기리며 평화·화합 다짐

순창군 구립민 회문산 비목공원에서 6·25전쟁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제2회 회문산 해원제가 25일 개최됐다. 회문산 제전위원회(위원장 김운석) 주관으로 열린 행사는 6·25전쟁 당시 회문산 일원에서 희생된 순국선열과 무고한 양민들의 넋을 위로하고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최영일 순창군수를 비롯해 조정희 의원, 지역 기관·사회단체장, 유가족,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평화의 소중함을 되새겼다.

행사는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헌화와 분향, 위령제, 추념사와 추모사, 헌시 낭송, 비목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구립민 청년회 김현근 회원의 헌시 낭송과 참석자들의 '비목' 제창이 이어지며 숙연한 분위기를 더했다. 이어 제733부대 3세대 장병들의 조총 발사도 진행되며 희생자들에 대한 예를 갖쳤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군,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현장점검 나서

순창군이 여름철 폭염과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에 대비해 11개 읍·면 현장점검을 마무리하고 재난 대응체계 점검에 나섰다.

군은 지난 19일부터 25일까지 11개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무더위쉼터, 인명피해 우려지역 등을 대상으로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재난 대책기간을 앞두고 읍·면별 대응체계와 주민

대피계획의 실효성을 확인하고 재난 취약지역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광희 부군수의 지휘 아래 안전재난과 합동점검반은 각 읍·면장과 자율방재단으로 구성된 주민대피지원단과 함께 현장을 방문해 재난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점검반은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비상근무 체계와 재난 발생 시 초동 대응체계, 주민 대피명령권 위임 운영

현황 등을 확인했다.

또한 마을별로 지정된 1마을 1인 주민대피지원단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주민 대피 절차와 지원 방안도 살폈다.

아울러 순창읍 사정2마을회관과 인계면 호계할머니경로당, 동계면 상의령마을회관 등 무더위쉼터 운영 현황을 점검했으며, 인계 노동지구와 동계 수장지구 등 산사태 및 토석류 유실 우려지역에 대한 안전점검도 병행했다.

군은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위험요인을 지속 관리하고 취약시설에 대한 보완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학교·공공급식 지역가공먹거리 공급 확대 교류회

남원시는 지난 24일, 그린웨딩타운에서 학교·공공급식 지역 가공먹거리 공급 확대를 위한 생산·소비 소통 교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류회는 학교·공공급식에서 사용되는 지역 가공먹거리의 공급 확대와 지역농식품 산업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전북도와 남원시, 장수군, 순창군, 정북 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이 공동으로 추진했다.

이날 행사에는 남원·장수·순창 지역 가공식품 생산업체 21개소와 학교 영양교사·영양사, 공공급식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지역가공품의 공급으로 추진했다.

특히 생산업체들은 고추가루, 추어탕, 김부각, 장류, 유제품, 요거트, 김



치류, 사과즙 등 다양한 지역가공먹거리를 소개하고 시식 행사를 진행했으며, 학교급식 현장에서 요구하는 품질 기준과 공급 방식, 제품 개선사항 등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또한 영양교사와 영양사들은 지역가공먹거리의 품질과 활용 가능성을 직접 확인하고 학교급식 적용 확대 방안

에 대해 논의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농업기술센터, 상반기 불용 임대 농업기계 매각 추진

남원시농업기술센터는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사용하던 불용 임대 농업기계에 대해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불용 농업기계 매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매각은 내구연한 경과와 노후화 등으로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불용 결정된 장비 중 활용 가능성이 있는 농업기계를 지역 농업인이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대 농업기계는 다수 농가가 공동

으로 사용하는 특성상 일정 기간 사용 후 성능 저하, 정비비 증가, 안전성 확보 등을 고려한 체계적인 교체·관리가 필요하다.

매각 대상은 소형트랙터, 소형굴삭기, 경운기, SS기 등 총 10종 28대이며, 매각은 6월 30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남원시농업기술센터 3층 강당에서 진행, 개찰은 같은 날 오후 4시 이후 실시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치즈

벨기에 출신 지정장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